

손흥민, 12년만 한국선수 월드컵 최종예선 득점왕 도전

타레미-우레이-이토와 함께 4골 최종예선 득점 공동 1위
2010 남아공월드컵 최종예선 박지성·이근호 이후 12년 만

벤투호 '캡틴' 손흥민(30·토트넘)이 12년 만에 월드컵 최종예선 한국인 득점왕에 도전한다. 손흥민은 지난 2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치른 이란과의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 A조 9차전 홈 경기에서 전반 추가시간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선제 결승골을 넣었다. 손흥민의 A매치 97번째 경기에서 터진 31번째 득점이다. 대표팀은 손흥민의 선제골 이후 이란을 더욱더 거세게 몰아붙였고, 후반 18분 김영권(울산)의 추가골로 2-0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한국이 이란을 꺾은 2011년 이후 무려 11년 만이다. 또 이날 승리로 최종예선 무패(7승2무·승점 23)를 달린 한국은 이란(승점 22)을 따돌리고 A조 1위가 됐다. 벤투호가 최종예선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

었던 배경에는 '해결사' 손흥민의 활약을 빼놓을 수 없다. 지난해 11월 이라크와 6차전 원정 경기(한국 3-0 승)에서 골을 넣었던 손흥민은 이란전에서도 골맛을 보며 최종예선 2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했다. 이란전 연속 득점이기도 하다. 지난해 '원정팀의 무덤'으로 불리는 이란 테헤란의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선제골을 넣어 1-1 무승부에 기여했던 손흥민은 이란과의 리턴매치에서도 득점포를 가동했다. 한국 선수가 이란을 상대로 2경기 연속 골을 넣은 건 2009년 박지성 이후 13년 만이며, 역대 두 번째다. 최종예선에서만 4골을 기록 중인 손흥민은 메디 타레미(이란), 우레이(중국), 이토 준야(일본)와 함께 아시아 최종예선 득점 공동 선두에 올랐다. 이중 타레미와 우레이는 각각 코로나19 확

진과 부진으로 최종예선 마지막 2연전 엔트리에서 제외돼 득점을 추가할 수 없다. 사실상 최종예선 득점왕 경쟁이 손흥민과 이토의 2파전으로 좁혀진 가운데 손흥민이 UAE전에서 득점포를 이어갈 경우 아시아 최고 골잡이 타이틀을 거머쥌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오는 29일 UAE와 원정 경기를 치르고, 일본은 홈에서 베트남과 붙는다. 한국은 2010년 남아공월드컵 최종예선 당시 박지성과 이근호(대구)가 나란히 3골로 이란의 자바드 네쿠남 등과 득점 공동 1위에 오른 바 있다. 2014년 브라질월드컵 최종예선에선 이근호가 공동 2위(3골)에 올랐고, 2018 러시아월드컵 최종예선 때는 구자철(제주), 기성용(서울)이 각각 2골로 공동 14위에 그쳤다. 손흥민이 이번 카타르월드컵 최종예선 득점 경쟁을 1위로 마치고 박지성, 이근호 이후 12년 만에 한국 선수 최고 순위를 기록하게 된다. UAE와 최종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2골을 추가하면 한국 선수 역대 A매치 개인 최다 득점 순위에서 이동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 대한민국과 이란의 경기, 손흥민이 득점 후 세레머니하고 있다.

손흥민은 이란전 득점으로 A매치 개인 최다 득점 단독 6위(31골)에 올라 있다. 공동 4위인 이동국, 김재환(이상 33골)과는 2골 차이이다. 최다 득점 1위(58골)는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다. 뉴스

'1위 수성+ 최종예선 무패 도전' 벤투호, UAE로 원정길 나서

내일 오후 10시45분 UAE와 카타르월드컵 예선 최종전



카타르월드컵 최종예선을 위해 마지막 경기인 아랍에미리트전을 위해 출국하는 축구대표팀이 26일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KFA 제공)

2022 카타르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된 벤투호가 아랍에미리트(UAE)와 최종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르기 위해 출국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6일 23시50분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UAE로 떠났다. 벤투 감독과 코치진을 비롯해 손흥민(토트넘), 황의조(보르도), 황희찬(울버햄튼) 등 주축 선수들이 이번 원정길에 나섰다. 지난 24일 이란과의 최종예선에 교체로 출전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소집 해제된 조규성(김천)의 대체 선수 이동준(헤르타

베를린)은 UAE 현지에서 대표팀에 합류한다. UAE전 목표는 A조 1위 수성과 최종예선 무패 도전이다. 한국은 이란을 꺾고 승점 23(7승2무)을 기록, 2위 이란(승점 22·6승1무1패)을 제치고 조 선두로 올라섰다. 그러나 승점 차가 1점밖에 나지 않아 UAE전에서 패하거나 비기면 1위 자리를 다시 내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29일 오후 10시45분(한국시간) UAE 두바이의 알함툼 스타디움에서 UAE와 붙는다. 이란은 같은 날 레바논과 만난다. 벤투호 분위기는 매우 좋다. 안방에서 치른

이란과 최종예선 9차전 홈 경기에서 손흥민, 김영권(울산)의 연속골로 2-0 완승을 거뒀다. 한국이 이란을 꺾은 건 2011년 이후 무려 11년 만이다. UAE전에서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내면 2010 남아공월드컵 최종예선 이후 12년 만에 월드컵 최종예선 무패를 달성한다. 12년 전에는 4승4무로 최종예선을 통과했다. 하지만 UAE전 방심은 금물이다. 한국은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을 조기 확정했지만, 현재 조 3위인 UAE(승점 9)는 4위 이라크(승점 8), 5위 레바논(승점 6)과 플레이오프 티켓을 놓고 막판까지 경쟁 중이다. 아시아 최종예선은 A, B조 1-2위가 월드컵 본선에 직행하고, 각 조 3위까지 플레이오프를 치른 뒤 대륙 간 플레이오프를 통해 월드컵 본선을 노린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한국과 달리 UAE는 이번 홈 경기에 총력을 다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기에선 부상을 경계해야 한다. 자칫 UAE가 거칠게 경기에 나설 경우 태극전사들의 부상 위험은 그만큼 커질 우려가 있다. 월드컵 최종예선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손흥민 등 주축 선수들을 부상 없이 뒀다면 월드컵 본선 플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미 벤투호는 미드필더 황인범(무빈 카잔)이 부상요로 이번 소집에서 제외됐고, 백승호와 김진규(이상 전북)가 코로나19 확진으로 낙마했다. 또 대체 선수로 뽑힌 원두재(울산)도 훈련 도중 부상으로 소집 해제된 상태다. 더 이상의 추가 부상자를 만들지 않는 것도 벤투호가 이번 UAE 원정에서 신경 써야 할 일이다. 뉴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이 25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더니든 TD 볼파크에서 열린 2022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와의 시범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1회 투구하고 있다. 류현진은 1회 선두타자에 홈런을 허용하는 등 3이닝 4피안타 3실점 2탈삼진을 기록했다.

'변수'가 된 류현진의 책임감 "나에게 달렸다"

"내가 잘하면 우리팀 정말 좋은 한 해보낼 것"

류현진(35·토론토 블루제이스)을 향한 시선은 이스에서 '변수'로 바뀌었다. 그래도 그의 책임감은 변함없다. MLB닷컴은 27일(한국시간) "류현진은 더이상 1선발이 아니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제하의 기사로 류현진을 소개했다. 토론토 이적 후 3번째 시즌을 맞는 류현진은 올해 팀의 3선발로 예상되고 있다. 호세 베리오스와 케빈 가우스만이 1, 2선발을 맡을 것이라 전망이다. 매체는 류현진을 토론토 선발진의 가장 큰 변수로 꼽았다. "2021년의 류현진은 이전과 달랐다. 베테랑 류현진은 평균자책점 4.37을 기록했고, 부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류현진이 스프링캠프에서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자신의 투구가 최고의 선발진 중 하나로 꼽히는 토론토 로테이션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도 있다. 류현진은 "우리가 매우 재능 있는 선발 로테이션을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면서 "나에게 달린 것 같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해낸다면 우리 팀은 정말 좋은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MLB닷컴은 "류현진의 평균자책점이 4점대를 맴돌면 4선발까지 밀려날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도 2017~2020시즌 류현진의 평균자책점은 2.71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뉴스

황선우, 코리아 스위밍챔피언십 100m '금'...세계랭킹 1위

김서영, 여자 접영 100m에 이어 개인혼영 200m도 1위

KB금융 코리아 스위밍 챔피언십에 출전한 황선우(19·강원도청)가 자유형 100m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황선우는 26일 경북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 자유형 100m 결승에서 48초42로 터치패드를 찍어 1위에 올랐다. 황선우는 지난해 도쿄올림픽 준결승전에서 세운 한국 기록(47초56)에는 못 미쳤지만, 컨디션이 완전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괄찬은 기록이다. 경기를 마친 황선우는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를 통해 "코로나19 때문에 몸 상태를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시즌 시작을 잘 끝낸 것 같다. 늘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만큼 남은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선우는 이번 대회에서 자유형 종목에만 출전한 이유에 대해서 "아직 자유형 100m, 200m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했다. 당분간은 주 종목에만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돼 개인혼영 200m에는 출전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황선우가 자유형 100m에서 우승하면서 한국은 제19회 부다페스트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티켓을 1장 더 확보했다. 2022년도 세계랭킹에서도 1위에 올랐다. 2019 광주 대회에 출전했던 황선우는 두 번째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개인 종목에 출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서영(28·경북도청)은 전날 열린 여자



접영 100m에 이어 개인 주 종목인 개인혼영 200m에서 2분11초92로 1위에 올랐다. 김서영은 "코로나로 인해 훈련을 잘 하지 못해서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용기를 다시 얻었다. 앞으로 세계선수권대회와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있는데 남은 시간 동안 부족했던 훈련량을 늘리고, 컨디션 조절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MLB닷컴 "류현진·김하성·최지만·박효준, 개막 포함"

2022시즌 미국 메이저리그 개막 로스터에 4명의 한국인 선수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다. MLB닷컴은 26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개막 엔트리를 전망했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류현진(토론토블루제이스), 최지만(탬파베이 레이스),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박효준(피츠버그 파이리츠)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 먼저 MLB닷컴은 류현진이 3선발로 개막을 맡을 것으로 내다봤다. 호세 베리오스, 케빈 가우스만, 알렉 마노아, 기쿠치 유세이가 류현진과 함께 토론토 선발 로테이션을 지킬 것이라 예상이다. 메이저리그 2년 차를 맞는 김하성은 에릭 호스머, 루크 보이트, 제이크 크로넨워스, 매니 마차도, CJ 에이브럼스와 함께 샌디에이고 내야수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매체는 손목 부상으로 이탈한 페르난도 타

티스 주니어의 자리를 김하성이 채울 것으로 점쳤다. 변수는 유망주 에이브럼스다. 아직 빅리그에 데뷔하지 못한 에이브럼스는 올해 시범경기에서 타율 0.353(1타수 6안타) 2홈런을 기록하고 있다. 매체는 에이브럼스가 꾸준한 타격 능력을 보여주면 유틸리티 자원인 김하성 대신 타티스 주니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봤다. 최지만은 탬파베이 1루수로 개막 로스터 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점쳤다. 지난해 빅리그에 입성한 박효준도 올해는 개막 로스터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효준이 지난해 메이저리그 45경기에서 2루수와 3루수, 유격수,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로 나섰던 것을 짚으면서 "수비에서 다재다능함을 보여줬기 때문에 백업 멤버로 로스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